

김서윤¹, 김지은¹, 이해우^{1,2}
KIM SEO-YUN¹, KIM JI-EUN¹, LEE HAE-WOO^{1,2}

초 록

● **조사목적:** 서울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시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정신응급 대응 요청 및 개입, 정신응급 대응 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도모와 향후 정신응급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방법:** 본 조사는 2020년 정신응급 대응 현황에 대해 정신응급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각 25개소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면조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종별 업무 성격에 따라 보건소 대상으로 지정정신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현황, 치료비 지원 현황, 외래치료지원제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대상으로는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성,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응급 출동 요청 및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은 정신응급 대응체계에 대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서울시의 지정정신의료기관은 2020.12.31.기준 8개소로 전년대 동일하며,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는 23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었다. 경찰과의 협력정도도 자치구별로 상이하였으며, 일부 자치구의 경우 경찰 요인보다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외래치료지원제 청구 및 결정 건수는 2건이었으며, 제공횟수나 범위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실무자 대상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3.9%가 정신응급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의 여건에 따라 담당이나 출동인력을 구성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위해 74.7%가 호송 시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차원으로 동행하였으며,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 2.0의 실효성에 대해 54%가 5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2020년도 한 해 정신응급 출동 요청 1,142건 중 1,038건(90.9%)에 실제 개입하였으며, 경찰의 요청이 49%로 가장 많았다. 주요조치 결과로는 응급입원 연계가 24.6%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응급출동 개입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입원치료 연계 비중은 2019년 39%에서 2020년 45%로 증가하였다. 정신응급출동 개입 건 중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대상자가 55.2%, 자살문제 25.9%, 나머지는 복합문제 18.9%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은 19%이었고, 미등록자 중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등록한 회원이 7%로 나타났다.

● **결론 및 제언:** 서울시 전체의 정신응급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본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체계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지역 내에서 신체 질환이 동반된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를 포함한 정신응급의료센터 또는 응급 및 행정입원이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확보와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응급 대응 유관기관 간 역할 조정 및 주요 이슈논의가 필요하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법적 역할 등이 모호하여 상호 간 협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응급 대응 업무와 관련된 범위와 기준,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현황조사를 근거로 정신응급 대응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포괄적인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요용어:** 정신응급, 정신응급대응체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